



Original Article

# 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Knowledge, Attitude, and Intention of High School Girls in Korea

Kang, Hee Sun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ung-Ang University

## 여고생들의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사용의도

강 희 선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부교수

###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knowledge of, attitude toward, and intention to use 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ECPs) and their relationships among Korean high school girls. **Methods:** This study is a cross-sectional correlational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191 high school girls by self-report questionnaires from December 10 to 22, 2008. **Result:** The mean scores of knowledge, attitude, and intention were 4.74 (range 1 to 12), 2.60 (range 1 to 5), and 3.36 (range 1 to 5) respectively. Only 45% of participants had received education on ECPs and most respondents (77.5%) wanted to know more about it. Participants who had a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 ECPs had a greater intention to use it. Participants who had received education on ECPs had more knowledge than those who had not received education. However,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attitude or intention between groups. **Conclusion:** This study indicates that efforts should be made to provide education on ECPs to high school girls to

increase awareness and to minimize the misuse of ECPs. Also,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designed to improve knowledge as well as promote a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 ECPs.

**Key Words :** Contraception, Adolescent, Knowledge, Attitude, Intention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응급피임약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 응급피임약은 1998~2000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도입되었고, 유럽이나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한 것에 반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사의 처

**주요어 :** 피임, 청소년, 지식, 태도, 의도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ang, Hee Sun,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ung-Ang University, 221 Heuksuk-dong, Dongjak-gu, Seoul 156-756, Korea. Tel: 82-2-820-5699, Fax: 82-2-824-7961, E-mail: goodcare@cau.ac.kr

\*본 연구는 2009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Chung-Ang University Research Grants of 2009.

투고일 : 2009년 8월 25일 1차심사완료일 : 2009년 11월 12일 게재확정일 : 2009년 11월 30일

방 하에 판매되고 있다. 응급피임약은 1974년 Yuzpe (Yuzpe, Thurlow, Ramzy, & Leyshon, 1974)가 처음 소개한 이후 단일 제제가 복합제제보다 피임효율이나 부작용 발생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어 프로제스틴인 levonorgestrel 0.75 mg 두 알을 12시간 간격으로 72시간 이내에 복용하도록 권장되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1.5 mg 한 알 (Okewole & Arowojolu, 2005; TFFPMFR, 1998)을 피임을 하지 않은 성교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복용하거나 최대 120시간 이내에 복용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공유산율이 청소년 및 대학생 연령층에서 매우 높은 편이며 첫 성교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Choi, Kim, & Oh, 2004). 따라서 의도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효과적인 피임법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지만, 응급피임약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므로 (Okewole & Arowojolu, 2005; Park & Han, 2002) 필요시 응급피임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또한 중요하다.

청소년들이 응급피임약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필요시 응급피임약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응급피임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 (Bozkurt et al., 2006). 그러나 성교육이 자칫 학생들의 성적 활동을 부추길 수 있으며 응급피임약에 대해 알거나 구입이 쉬워지면 피임을 소홀히 하고 반복적인 사용 등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왔다 (Sripichyakan & Tangmunkongvorakul, 2006). 우리나라에서도 보건교육시간의 부족과 피임교육에 대한 학부모나 학교의 부정적인 시각 등의 장애요인으로 인해 응급피임약에 대한 교육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Kang, 2008). 그러나 우려와 달리 성교육은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증가와 긍정적인 태도로의 변화를 유도했으며 응급피임약을 남용하거나 피임을 소홀히 하는 부정적인 효과는 없었다 (Larsson, Eurenus, Westerling, & Tydén, 2006; Walker, Tores, Gutierrez, Flemming, & Bertozzi, 2004).

응급피임약과 관련한 국외 선행연구들은 의료진 (Ebuehi, Ebuehi, & Inem, 2006), 학부모 (Sripichyakan & Tangmunkongvorakul, 2006), 약사 (Fuentes & Azize-Vargas, 2007), 대학생 (Hodes, 2005), 청소년 (Bozkurt et al., 2006; Mollen et al., 2009; Walker et al., 2004) 등을 대상으로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 또는 피임소홀이나 남용가능성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언어나 지역 (Sampson et al., 2009)에 따라 응급피임약 구입에 차이가 있는지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선행연구들에서 응급피임약이나 경구피임약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적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Cunningham, 2009;

Likis, 2006),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이 높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필요시 사용할 의도 (Goulard, Moreau, Gilbert, Job-Spira, Bajos, & Cocon Group, 2006)가 더 높았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응급피임약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응급피임약의 작용기전이나 효과 및 안전성 (Park, 2000; Park & Han, 2002), 여성 (Kang & Moneyham, 2008)이나 보건교사 (Kang, 2008)들의 응급피임약에 대한 태도와 장애성 등에 관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

청소년들이 응급피임약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고 자율적인 선택결정을 돕기 위해서는 응급피임약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 태도는 사용의도의 주요 결정요인이며,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부족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Calabretto, 2009). 따라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여고생들이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정도와 태도를 측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에서 여고생들이 응급피임약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응급피임약에 관한 교육 요구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여고생들의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 의도와 이들의 상관관계 및 교육여부에 따라 변수들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노력은 추후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한 피임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피임교육에 대한 방향 및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며 고등학교에서 응급피임약에 대한 교육 시 어떠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할 것이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여고생들의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 태도, 의도를 조사한다.
- 여고생들의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 태도, 의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다.
- 응급피임약에 대한 교육 여부에 따른 지식, 태도, 의도의 차이를 조사한다.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고생들의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 의도 정도와 이들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상관

관계 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부산에 위치한 여자 고등학교 각 1개에 재학중인 여학생들이며 편의표출 하였다. 표본 수는 Cohen(1988)의 공식에 의해 산정하였다. 유의수준  $\alpha = .05$ , 통계 검정력 .8, 효과 크기가 중간크기일 때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에 필요한 총 표본 수는 88명이다. 탈락율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각 학교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각 학년별로 1~2개 반을 추출하였으며, 총 200명 중 미 응답과 부실 응답 9부를 제외하여 최종 191명이었다.

## 3. 연구도구

### 1)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은 응급피임약 지식 척도(Kang & Moneyham, 2008)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12문항 맞다, 틀리다, 모름으로 측정되며, 맞으면 1점, 틀리거나 모름은 0점 처리하여 0에서 12점의 점수범위를 가진다. 점수가 높을수록 응급피임약 사용에 대한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KR20은 .7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5이었다.

### 2) 응급피임약에 대한 태도

응급피임약에 대한 태도는 3요인(남용의 두려움, 건강염려, 구입의 용이성) 총 12문항 5점 척도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로 구성된 응급피임약에 대한 태도 척도(Kang, 2007)로 측정되었고, 12점에서 60점의 점수범위를 가진다. 부정문항은 역 코딩하여 산출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응급피임약 사용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0$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4$ 이었다. 각 하부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8$ (남용의 두려움), .75(건강염려), .76(구입의 용이성)이었다.

### 3) 응급피임약 사용의도

응급피임약에 대한 사용의도는 1개 문항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급피임약 사용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4.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자료는 2008년 12월 10일부터 2008년 12월 22일까지 서울과 부산지역에 위치한 여자 고등학교 각 1곳에 재학 중인 200명의 여고생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어 허락을 받은 후 연구보조원이 교과담당선생님의 협조를 얻어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비밀유지 및 자율적인 참여에 대해 설명한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자가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참여자들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았다. 수거된 193부(응답율 96.5%) 중 부실응답 2부를 제외한 후 총 191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 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WIN 14.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 의도 정도는 서술통계를 이용하였다.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구하였고, 교육여부에 따른 그룹 간에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 연구결과

### 1.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참여자들의 연령 분포는 만 15~18세이고 평균 연령은  $16.51 \pm 0.88$ 세이었다. 종교는 기독교 47명(24.6%), 천주교 25명(13.1%), 불교 32명(16.8%), 기타 종교와 종교가 없는 경우는 87명(45.5%)이었다(Table 1).

성교경험이 있는 참여자는 29명(15.2%), 응급피임약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3명(1.6%)이었고, 단지 86명(45%)만이 응급피임약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응급피임약의 정확한 사용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148명(77.5%)이었다.

### 2. 여고생들의 응급피임약에 대한 사용의도, 태도, 지식

필요시 응급피임약 사용 의도는 1~5점 범위에서  $3.36 \pm 1.09$  점이었다고, 여고생들의 응급피임약에 대한 태도점수는 평균  $2.60 \pm 0.60$ 점이었다(Table 2). 태도의 하부요인별로 살펴보면 구입의 용이성( $3.35 \pm 0.78$ ), 남용의 두려움( $2.26 \pm 0.83$ ),

건강염려 (2.16±0.72) 요인 순으로 평균 점수가 낮았다. 태도 문항 중에서는 '비용이 저렴해야 한다' 문항 점수가 3.49점으로 가장 높았고, '응급피임약을 복용하면 나중에 임신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문항 점수가 2.06점으로 가장 낮았다.

여고생들의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정도는 평균 4.74±2.82 점이었다(Table 3). '응급피임약은 성교 후 120시간 내에 복용해야 효과적이다', '이미 임신이 되었으면 복용 후 유산이 될 것이다' 항목에 가장 낮은 정답 율을 보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9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Age (year)	15~18	23 (12.0)	16.51±0.88
Grade	Freshman	92 (48.2)	
	Junior	50 (26.2)	
	Senior	49 (25.7)	
Religion	Christian	47 (24.6)	
	Catholic	25 (13.1)	
	Buddhist	32 (16.8)	
	Other	87 (45.5)	
Sexual intercourse experience	Yes	29 (15.2)	
	No	162 (84.8)	
Ever used ECPs	Yes	3 (1.6)	
	No	188 (98.4)	
Had education about ECPs	No	105 (55.0)	
	Yes	86 (45.0)	
Want to know more about ECPs	Yes	148 (77.5)	
	No	43 (22.5)	

ECPs=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Table 2.** Attitude toward using 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N=191)

Items	M±SD
Fear of misuse	2.26±0.83
Increase of irresponsible behavior*	2.12±0.95
Increase promiscuity*	2.31±1.09
More STIs/HIV due to nonuse of condoms*	2.34±0.99
Increase misuse*	2.25±1.01
Careless use of contraception*	2.25±0.98
Easy accessibility	3.35±0.78
Easy access	3.45±0.99
Available without prescription	2.91±1.14
Inexpensive	3.49±0.96
Available to all women	3.57±0.99
Health concerns	2.16±0.72
Might affect on pregnancy*	2.06±0.83
Harmful to the body*	2.18±0.89
Afraid to use due to side effects*	2.23±0.92
Total	2.60±0.60

\*Items were reverse-coded.

**Table 3.** Knowledge about 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N=191)

Items	Correct	Incorrect
	n (%)	n (%)
Same ingredients as oral contraceptive pills.	39 (20.4)	152 (79.5)
Effective when taken within 72 h after unprotected sex	99 (51.8)	92 (48.2)
Effective when taken within 120 h after unprotected sex	18 (9.4)	173 (90.6)
Effective when taken before sexual intercourse*	73 (38.2)	118 (61.8)
Should not be used with a pregnancy	69 (36.1)	122 (63.9)
Effective for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81 (42.4)	110 (57.6)
Prevent implantation	119 (62.3)	72 (37.7)
Nausea is common side effect	45 (23.6)	146 (76.4)
100% effective in preventing pregnancy*	114 (59.7)	77 (40.4)
If already pregnant, it will terminate the pregnancy*	33 (17.3)	158 (82.7)
Prescription is required in Korea	108 (56.5)	83 (43.4)
More effective the sooner they are taken	108 (56.5)	83 (43.4)
Total (M±SD)	4.74±2.82	

\*Incorrect items.

### 3. 응급피임약에 대한 의도, 지식, 태도와의 상관관계

응급피임약에 대한 의도, 지식, 태도와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응급피임약에 대한 의도는 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 ( $r=.311, p<.001$ )가 있었으나 지식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 $r=.121, p=.095$ ).

**Table 4.**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191)

Variables	1	2	3
1. Intention to use ECPs	1		
2. Knowledge about ECPs	.121 (.095)	1	
3. Attitude toward ECPs	.311 (.000)	-.025 (.727)	1

ECPs=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 4. 응급피임약에 대한 교육여부에 따른 의도, 지식, 태도의 차이

응급피임약에 대한 교육을 받은 군과 받지 않은 군 간에 지식, 태도 및 의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응급피임약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군이 없는 군에 비해 지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 $t=-3.340, p=.001$ ), 태도 ( $t=.355, p=.723$ )와 의도 ( $t=-.706, p=.481$ )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논 의

본 연구는 여고생들의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의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여고생들은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이 낮았고 대다수가 응급피임약에 대해 더 알기를 원했다. 응급피임약사용 의도는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높았고, 교육을 받은 군이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은 높았으나 태도와 의도는 그룹 간에 차이가

없었다.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 정도는 0~12점 범위에서 평균 4.74점으로 보건교사(Kang, 2008)의 8.52점이나, 여대생(Kang & Moneyham, 2008)의 5.03점보다 낮았다. 선행연구결과 여고생 382명 중 94.5%가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고생들의 피임지식 오답률이 높았고(Lee, 2009), 중, 고등학교 여학생들의 피임지식은 총 15점 만점에 3.8점으로 매우 낮았으며, 특히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은 콘돔이나 경구 피임약보다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Choi et al., 2004). 본 연구에서도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은 낮았는데 이는 본 연구참여자들 중 반수 이상(55%)이 응급피임약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며 교육을 받았어도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여겨진다. 국외에서 실시된 선행연구들에서도 의료인(Ebuehi et al., 2006), 약사(Fuentes & Azize-Vargas, 2007) 등 전문인뿐만 아니라 일반인(Sripich-yakan & Tangmunkongvorakul, 2006)들도 응급피임약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것이 공통적인 현상으로 보고 되었다. 일례로 터키 대학 1년생 385명 중 약 반 정도(49.8%)가 응급피임약에 대해 모르고 있었고(Bozkurt et al., 2006), 흑인 청소년들은 권장시간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고(Mollen et al., 2009), 영국 청소년들은 경구피임약에 대한 부정적 신념과 부작용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었다. 국내의 다양한 대상자들이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이러한 현상은 응급피임약 보급에 비해 정보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을 반영한다.

본 연구참여자들 중 교육을 받은 군이 교육을 받지 않은 군에 비해 지식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나 교육을 받은 군에서 초차 지식점수가 평균 5.47점에 불과했다. 이는 응급피임약에 대한 교육시간이 충분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지 않았거나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중·고등학생들의 보건교육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여자 중학생 및 고등학생 모두 피

**Table 5.** Group differences by education on 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N=191)

Variable	Had education on ECPs (n=86)	No education on ECPs (n=105)	t (p)
	M±SD	M±SD	
Knowledge	5.47±2.48	4.15±2.95	-3.340 (.001)
Attitude	2.58±0.58	2.61±0.61	0.355 (.723)
Intention	3.42±1.20	3.30±0.98	-0.706 (.481)

ECPs=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임과 가족계획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높았는데 (Kang, Choi, Lee, & Hwang, 2004), 본 연구에서도 참여자 대부분은 응급피임약에 대해 더 알기를 원했다. 그러나 국내 123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급피임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단지 53.7%이었다. 국내 보건교사들이 응급피임약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주요 장애요인은 건강교육을 위한 시간부족, 학교의 보수적인 시각, 학부모님들의 반대, 불충분한 재정, 정보부족, 남용 우려 등이었다 (Kang, 2008; Sripichyakan & Tangmunkongvorakul, 2006). 이와 유사하게 태국 고등학교 교사들이 응급피임약에 대한 교육을 꺼리는 이유는 정보부족과 무책임한 성행위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응급피임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하면 응급피임약 사용을 주저하거나 (Brunton & Beal, 2006) 잘못 사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응급피임약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여고생들이 필요시 응급피임약 사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응급피임약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교육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및 정부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참여자들의 응급피임약에 대한 태도는 평균 2.60점으로 보건교사 (Kang, 2008)나 여대생들 (Kang & Moneyham, 2008)의 응급피임약에 대한 태도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보건교사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Kang, 2008; Kang & Moneyham, 2008)에서와 같이 하부요인 중 '구입의 용이성' 요인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건강염려' 요인에 대한 태도 점수가 가장 낮은 결과는 대학생 (Kang & Moneyham, 2008)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뒷받침하지만 보건교사들에서 '남용의 두려움' 요인이 가장 낮은 태도 점수를 보인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여고생이나 여대생들의 경우 응급피임약을 직접 사용하는 위치에 있는데 비해 보건교사들은 교육자의 입장에서 남용에 대한 우려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응급피임약에 대한 태도의 하부요인 중 건강염려 요인에 대한 태도점수가 가장 낮은 것은 응급피임약이 건강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여고생들의 응급피임약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에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나 건강이나 추후 임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염려가 경구피임약이나 응급피임약 사용의 장애요인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Gilliam, Warden, Goldstein, & Tapia, 2004). 그러나 연구결과 응급피임약은 안전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Norris & Ellertson, 2002). 또한 응급피임약의 부작용이 일반적으로 미미하다고 알고 있는 학생들이 응급피임약에 대해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고 (Harper, Charlotte, & Ellertson, 1995),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였을 때 응급피임약 사용 의도가 낮았다 (Romo, Berenson, & Wu, 2004). 따라서 응급피임약에 대한 교육을 할 때에는 응급피임약이 안전하고 추후 임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시켜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참여자들의 응급피임약 사용 의도는 다소 긍정적이었으며 남녀 대학생들 (Kang & Moneyham, 2008)의 의도 정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터키 대학 1학년 여대생 72%가 필요시 응급피임약을 사용할 의도가 있다고 했으며 (Bozkurt et al., 2006), 흑인 청소년들의 응급피임약 사용에 대한 태도는 의도와 관련이 있었다 (Mollen et al., 2009). 합리적 행위이론에 따르면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태도인데, 본 연구에서도 필요시 응급피임약 사용 의도는 지식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태도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태도의 변화가 중요하다.

교육을 받은 그룹이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이 유의하게 높으나 응급피임약에 대한 태도와 사용 의도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스웨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한 결과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고 태도는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응급피임약 사용은 증가하지 않았다 (Larsson et al., 2006). 이러한 차이는 스웨덴에서 경구피임약 사용이 보편화되어 되어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 여성들은 부작용에 대한 염려 때문에 경구피임약 사용을 꺼리는 (Lim & Cho, 2002) 문화적 차이로 인한 것이거나 교육이 태도변화를 유도하기에 충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응급피임약에 대한 교육은 여고생들에게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부정적인 태도를 긍정적인 태도로 전환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

## 결론 및 제언

참여자들의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은 낮았으나 응급피임약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고, 필요시 사용 의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참여자의 약 절반 정도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고, 대다수가 응급피임약에 대해 좀 더 알기를 원하므로 이들에게 교육을 통해 응급피임약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을 받은 군이 지식은 높으나 태도와 의도 차이가 없었다. 의도는 태도와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으므로 교육이 지식전달위주보다는 긍정적인 태도변화를 통해 의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응급피임약 구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제도 개선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으며, 교육과 상담 시에 응급피임약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급피임약에 대한 개인의 종교적, 도덕적 가치관을 존중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응급피임약에 대한 자율적 선택결정을 돕고, 올바른 사용으로 인해 응급피임약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대상자는 편의추출 하였고 2개 여자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향후 남·여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고등학생들의 응급피임약 사용실태 및 지식과 태도를 조사할 것과 남녀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응급피임약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 References

- Bozkurt, N., Korucouglu, Ü., Aksakai, F. N., Biri, A., Çiftçi, B., Maral, I., & Tiras B. (2006). Turkish adolescents' knowledge on and attitude toward emergency contraception. *J Pediatr Adolesc Gynecol*, 19(6), 391-395.
- Brunton, J., & Beal, M. W. (2006). Current issues in emergency contraception: An overview for providers. *J Midwifery Womens Health*, 51(6), 457-463.
- Calabretto, H. (2009). Emergency contraception-knowledge and attitudes in a group of Australian university students. *Aust N Z J Public Health*, 33(3), 234-239.
- Choi, S., Kim, Y., & Oh, H. (2004). A study on sexual behavior, pregnancy and contraception knowledge in female adolescent. *Korean J Women Health Nurs*, 10(1), 42-50.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 Cunningham, R. (2009). *Contraceptive attitudes and knowledge of female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 thesis, The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Public Health, TX.
- Ebuehi, O. M., Ebuehi, O. T., & Inem, V. (2006). Health care providers' knowledge of attitudes toward and provision of emergency contraceptives in Lagos, Nigeria. *Int Fam Plan Perspect*, 32(2), 89-93.
- Fuentes, E. C., & Azize-Vargas, Y. (2007). Knowledge, attitudes and practices in a group of pharmacists in Puerto Rico regarding emergency contraception. *P R Health Sci J*, 26(3), 191-197.
- Gilliam, M. L., Warden, M., Goldstein, C., & Tapia, B. (2004). Concerns about contraceptive side effects among young Latinas: A focus-group approach. *Contraception*, 70, 299-305.
- Goulard, H., Moreau, C., Gilbert, F., Job-Spira, N., Bajos, N., & Cocon Group. (2006). Contraceptive failures and determinants of emergency contraception use. *Contraception*, 74(3), 208-213.
- Harper, C., & Ellertson, C. (1995). The emergency contraceptive pill: A survey of knowledge and attitudes among students at Princeton University. *Am J Obstet Gynecol*, 173(5), 1438-1445.
- Hodes, M. R. (2005). *College women's experience with emergency contracep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 Kang, H. S. (2007). Development of 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knowledge and attitude scales. *J Korean Data Anal Soc*, 9(3), 1153-1163.
- Kang, H. S. (2008).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of high school health teachers in Korea. *J Korean Data Anal Soc*, 10(2B), 713-725.
- Kang, H. S., & Moneyham, L. (2008). Use of 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and condoms by college students: A survey. *Int J Nurs Stud*, 45(5), 775-783.
- Kang, P., Choi, Y., Lee, K., & Hwang, T. (2004). Demands for health education through internet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Yeungnam Univ J Med*, 21(1), 23-39.
- Larsson, M., Eurenus, K., Westerling, R., & Tydén, T. (2006). Evaluation of a sexual education intervention among Swedish high school students. *Scand J Public Health*, 34(2), 124-131.
- Lee, G. D. (2009). *A study on relation of the girl's high school contraception knowledge, sexual behavior*. Unpublished master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 Likis, F. (2006). *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knowledge, attitudes, and practice patterns among certified nurse-midwives in North Carolin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NC.
- Lim, H. J., & Cho, Y. H. (2002). A comparative study of knowledge and attitude on oral contraceptive between Korean and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Korean J Women Health Nurs*, 8(4), 471-481.
- Mollen, C. J., Barg, F. K., Hayes, K. L., Gotcsik, M., Blades, N. M., & Schwarz, D. F. (2009). Assessing attitudes about emergency contraception among urban, minority adolescent girls: An in-depth interview study. *Pediatrics*, 122(2), e395-e401.
- Norris, T. A., & Ellertson, C. (2002). How safe is emergency contraception? *Drug Saf*, 25(10), 695-706.
- Okewole, I. A., & Arowojolu, A. O. (2005). Single dose of 1.5 mg levonorgestrel for emergency contraception. *Int J Gynecol Obstet*, 89(1), 57-58.
- Park, S. H. (2000). Emergency contraception from the viewpoint of prevention for unintended pregnancy. *J Reprod Med Population*, 13(1), 55-59.
- Park, S. H., & Han, J. H. (2002). Effectiveness and side effects of 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Korean Public Health Res*, 28(2), 121-126.
- Romo, L. F., Berenson, A. B., & Wu, Z. H. (2004). The role of misconceptions on Latino women's acceptance of 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Contraception*, 69, 227-235.
- Sampson, O., Navarro, S. K., Khan, A., Hearst, N., Raine, T. R., Gold, M., Miller, S., & de Bocanegra, H. T. (2009). Barriers to adolescents' getting emergency contraception through pharmacy access in California: Differences by language and region. *Perspect Sex Reprod Health*, 41(2), 110-118.
- Sripichayan, K., & Tangmunkongvorakul, A. (2006). Comparison of knowledge, attitudes, experience, and opinions between teachers and guardians regarding the emergency contra-

ceptive pill in Chiang Mai, Thailand. *Nurs Health Sci*, 8(1), 27-35.

Walker, D. M., Tores, P., Gutierrez, J. P., Flemming, K., & Bertozzi, S. M. (2004). Emergency contraception use is correlated

with increased condom use among adolescents: Results from Mexico. *J Adolesc Health*, 35(4), 257-258.

Yuzpe, A. A., Thurlow, H. J., Ramzy, I., & Leyshon, J. I. (1974). Post-coital contraception - A pilot study. *Reprod Med*, 13, 53-58.